

도감의 다양한 활용과 전문가의 수고가 인정받는 사회를 위하여



수중촬영전문가 김병일 씨(45)는 얼마 전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실전갱이 사진을 하나 올려놨다. 2001년 자연다큐멘터리 <문어의 모정>(SBS 장원준 감독)을 작업하기 위해 바다에 나왔다 우연히 정치망에 걸린 실전갱이를 발견하고 찍어놓은 것이었다. 병어 같이 생긴 몸에 몸통 길이 두 배 정도의 가는 지느러미를 우아하게 뿜내는 놈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실전갱이를 볼 수 없었

다. 그 당시에 이렇게 찍어놓지 않았다면 언제 다시 찍을지 기약할 수 없는 사진이었다.

“다른 자연사진이 그렇듯 수중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한 만큼 아름답고 신비한 그들의 생태를 렌즈에 담을 수 있으니까요. 실전갱이를 만난 것처럼 운이 좋은 날은 실제로 드물죠.”

내륙(대구)에 살던 김병일 씨가 바다와 인연을 맺은 것은 낚시를 통해서였다. 바다낚시를 하다보니 물속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됐고, 당시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던 직장 동료를 졸라 다이빙 교육을 받게 되었다. 수중촬영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때였다. 신비로운 바다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 사진을 전공한 자신의 특기를 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스쿠버 다이빙과 수중 촬영에 빠져 다니던 직장(공무원)을 버리고 제주도 서귀포로 내려온 게 벌써 13년 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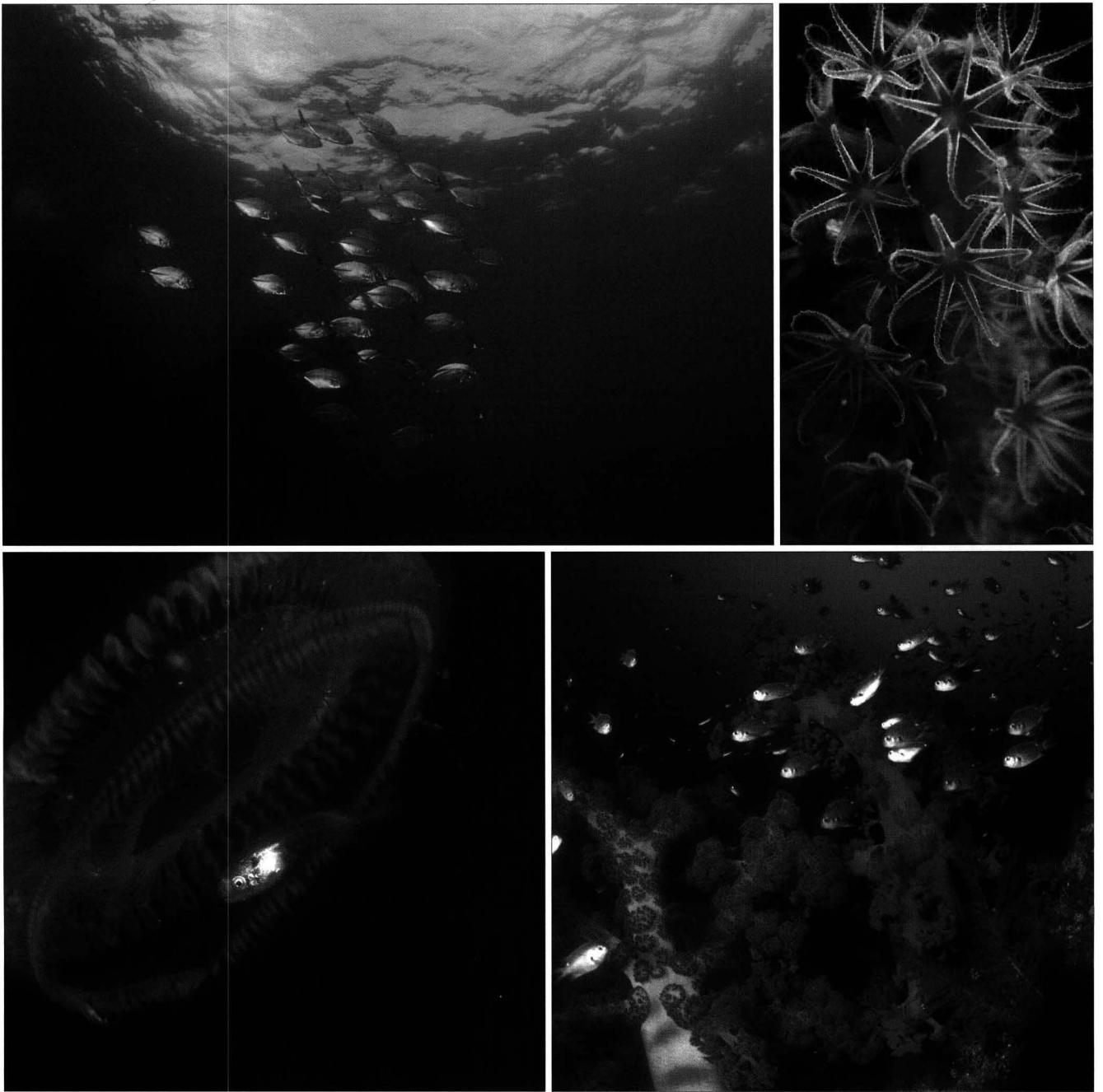
“처음 내려와서는 모아둔 돈 까먹어가며 사진만 찍었죠. 그러다 3년 만에 스포츠 дай버들과 촬영가들을 수중으로 안내하는 태평양다이빙스쿨 www.pacific21.co.kr을 열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의 학술조사 활동을 돕고 <바다의 숲 해조>, <생존과 본능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 등 방송사의 해양 다큐멘터리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제 일이죠.”

김씨가 작업한 도감으로는 《우리바다 해양생물》(다른 세상)과 《우리바다 어류도감》(다락원)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8년 동안 물에 들어간 횡수 만도 총 4,850회가 넘는다. 목욕탕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평생 그만큼 물속을 다니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해양생물을 촬영하면서 느낀 안타까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부러운 소식을 접할 때 그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일본은 수중사진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특히 도감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어촌마다 자체 발간한 도감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중 사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 해에 수익을 버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냥 장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합치도 1,000여 명 정도다. 모든 도감이 그렇겠지만, 수중 사진 도감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 김씨는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도감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또 작업한 사람



들의 수고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행히 요즘엔 해양학을 연구하는 젊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바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몇몇 바다도감은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이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기록하고 지켜가려는 노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김씨는 요즘 그 동안 찍은 1,000롤이 넘는 바다사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중이다. 바다의 신기한 생태계를 소개하는 책과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단지 개인이나 주변 몇몇의 만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사진을 찍는 사람들

명정규_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저서_《한국어명집》《한국해산어류도감》

전길봉_ 영덕 제이·다이버스 대표 한국수중사진공모전 1회 ~ 3회 대상·금상 수상

이선명_ 두성해양연구소장, 『수중세계』발행인/

저서_《제주 바다물고기》

나규채_ 전남 담양군청 공보담당. 2000년 광주비엔날레 전국 사진 공모전 금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저서_《사진으로 본 남도들꽃》

이원규_ 농사꾼 생태 사진가. 1992년 환경처 주최 '환경생태사진 공모전' 대상/저서_《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비 백 가지》《나비》《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민물고기 백 가지》《쉽게 찾는 우리 곤충 I, II》

석동일_ 한국생태사진가협회 초대회장. 환경운동가이자 동굴사진전문가. 동강댐 백지화를 이끌어낸 주역/저서_《동굴의 비밀》

EPC(Eco Photo Club)_ 환경을 생각하는 수중사진가들의 모임. 생태도감을 만들기 위해서 도감사진 촬영투어를 실시해 도감출판/저서_《한국해양생물사진도감》